

대담자 interviewer(김홍석, 기획자, 남), 초대자 interviewee(안내상, 연기자, 남),
통역자 translator(장소연, 연기자, 여)

대담자

2002년 10월 4일,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결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 사건은 언론에 주목을 끌만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둘의 다툼은 결국 방글라데시인인 조르나 한난씨가 전치 8주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식하고 폭력적인 한국인이라는 수치스러운 인상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심어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인 노동자 강모씨를 고소한 조르나 한난씨의 동료인 몸디 파쉬르씨를 모시고 그가 바라본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빈국에서 국민 소득 일만 달러를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 놓은 우리 국가가 상대적으로 빈국으로 치부되어 있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앞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은 한국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오신 송민영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통역자

므르 쉬 등키아, 쏘티모

2. 초대자

므르 쉬 등키아, 바를티 키수양 마띠

2. 통역자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대담자

몸디 파쉬르씨, 본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통역자

하지만 디 몸디 파쉬르

4. 초대자

만초 궁 디설 또 무부신다니 왈 기다실 디 쥐흐 만다루드흐 혼 지 디할 쉬구를 인도네차이빠지공
디디 만 디디구를 쉬 독마지앙 또 기약 쉬 제마..... 오정민 무뽀약 1 분

4. 통역자

나는 2002 년 동티모르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때는 나의 조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후 경제적 재건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국에 파견되었었던 한국의 제마 부대원들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대원 중 오정민 대위의 소개로 나는 동티모르에 있는 한국 건축 회사에 취직하였고 그런 인연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좀 더 한국에 대해 알고 한국에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안성에 있으며 플라스틱 성형 제품을 만듭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5. 대담자

한국의 생활은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회사에서의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5. 통역자

싸리드 꼬레아무 덩 술 까띠만 디르 에티와 덩 술 만 카띠 푸질 만디르 와르다가니

6. 초대자

마지나 오릴 속대루 둥끼야니 덩 우빙 커리쌍 덩 뽀 리아 속디르 흑소 만다니

6. 통역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주 친절하며 제가 지내는 안산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어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이 갖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가끔 회의적입니다. 저는 돈을 벌러 한국에 왔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적도 저와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단지 돈만을 벌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7. 대담자

돈만을 벌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7. 통역자

아디르 만사쉬 딜 티아 풍기리 썬사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드락?

8. 초대자

오르 망 디 쉬미르 잔다니 쿠물 시키나다 만싸진 끼룩 카민 샴샤르 오르 딜 띠민기 샤 오기만 샤르 둥기만 하르 유르학 끼띠민 샤르만 딕 쿠르 밀쌈모 우딕 타키르치스티니 우멜 쭈니민 시를 으루 꾸민 새르만 딕디니 몸디 산만쿰 이디쑤잉 쿠 민시리 함샤오 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샤밀까 오질미르 몸디만 샤르쿰 이닥 샤오움 몸디를쿠르만사키 오딕 만샤르

몸이닥 카르 만샤니 위디물이 딜삼쿠 이밀카밀 오쿠이삼디 만샤키 와 이질눔쿱 이까오만카
딜삼샤쿱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이디썸잉 쿠 민시리 함샤오 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샤밀까 오질미르 몸디만 샤르쿱 이닥 샤오웁 몸디를쿠르만샤키 오딕 만샤르
몸이닥 카르 만샤니 위디물이 딜삼쿠 이밀카밀 오쿠이삼디 만샤키 와 이질눔쿱 이까오만카
딜삼샤쿱 우난닥

8. 통역자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말 그대로 피고용자입니다. 고용주로부터 우리는 노동과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천직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나라에서는 군인이었으며 공무원으로도
일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동료들도 상황은 같습니다. 심지어 사회사업가도 있으며 종교인도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완벽한 정체성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돈은 우리에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돈을 벌지만
사람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같은 한국의 방문객도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일한 위치에 서고
싶다는 말입니다.

9. 대담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인권이 침해
받거나 그 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일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9. 통역자

마니드 르 상디 코레아 를 디와 몸디쏘티르 덩가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닥 썸샤우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새르만 덕디니 몸디 산만쿱 이디썸잉 쿠 민시리

10. 초대자

과디날 디 왕 사맘 끼르 덕 사르 질사 맘싸르 와 톱고를 파디 샤밀까 오질미르 몸디만 샤르쿱
이닥 샤오웁 몸디를쿠르만샤키 오딕 만샤르 몸이닥 카르 만샤니 위디물이 딜삼쿠 이밀카밀
오쿠이삼디 만샤키 와 이질눔쿱 이까오만카 딜삼샤쿱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이디썸잉 쿠 민시리
함샤오 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새르만 덕디니 몸디 산만쿱 이디썸잉 쿠
민시리 함샤오 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샤밀까 오질미르 몸디만 샤르쿱
이닥 샤오웁 몸디를쿠르만샤키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둠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두르샹그만샤니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따락 미차 상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둠

10. 통역자

저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분들에게 혹시 욕되게 할까 싶어 말씀 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설립 목적과 그 의도에 대해 가끔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을 모르고 심지어 실생활에서 겪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소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의료 혜택도 저희에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단체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이도 아닌 정말 보호대상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저희를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와 주시는 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실제 그 분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마치 정신 박약이나 신체 불구자를 대하는 것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따뜻하게 성심 성의껏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심지어 변호사님들은 무보수로 일도 해주시고 목사님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향에 방문하여 그들이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을 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이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단체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정치인등과 같은 사회의 지도층인 사람들이 자문 역할을 해 주시고 실제 도와 주시기도 합니다.

11. 대담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 통역자

만떡 두르와 상시만카르닥?

12. 초대자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썸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뚜르상그만사니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따락 미차 상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돔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썸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뚜르상그만사니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따락 미차 상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돔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따락 미차 상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돔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썸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완씨에 다싼지 민까 썸샤우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돔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썸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뚜르상그만사니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따락 미차 상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돔

12. 통역자

구체적인 사건은 이루 말 할 수 없게 많습니다. 일단 한국인 노동자인 강모씨와 한남씨와의 사건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친했고 특히 강모씨는 한남씨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남씨는 저처럼 혼란을 겪었는데 강모씨가 보여준 선행과 우정이 저희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 보다 보호 대상자 혹은 극빈자로서 대했기 때문입니다. 강모씨는 우리에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일반적 정서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그가 해석한 개인적 의견일 수 있음에도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제가 들은 베트남 동료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주장을 굽힐 줄 몰랐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단가 그래야 성공해야 한단가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이외도 우리는 사람으로써 서로 맞대고 살기 때문에 서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은 추억을 갖는 것도 아울러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보입니다.

13. 대담자

만약 파쉬르씨가 사는 동티모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동티모르에 다른 국적의 노동자가 찾아 와 직업을 구할 때 파쉬르씨는 그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그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3. 통역자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둠 시만 난쑤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덕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싹다질 미. 피릴 쑤난 만시 깡띠와 한남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뚜르샹그만사니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뎌 따락 미차 샹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사이 둠

14. 초대자

추미르 파우지 새샤밀 두미르 얄디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이디쑤잉 쿠 민시리 함샤오 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새르만 딕디니 몸디 산만쿰 쿠르만 샤미르 쿠 민시리 함샤오 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샤밀까 오질미르 몸디만

14. 통역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극빈국이고 선진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을 베푸는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15. 대담자

결국 한국의 노동법이라던가 인권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의 외국인을 위한 노동법과 인권 사항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파쉬르씨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사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 혹은 상식이라는 가정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15. 통역자

이질놈쿱 이까오만카 딜삼샤쿱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무딕 말 띠와 한난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이디썸파 쿠 민시리 함샤오 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새르만 딕디니 몸디 산만쿱 오르만 썸잉 쿠 민시리 뮤딜마샤키 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샤밀까 피난마타르 까 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샤이 둠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16. 초대자

몰디 만샤르 푸한디 만날 파우지 우뚝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뚜르샹그만사니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띠락 미차 샹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샤이 둠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디몸 꼬우 르따딕씨뭉 우락 미차 샹두지까 멘오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샤이 둠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로난 파우지 완씨에 다싼지 민까 썸샤우 이질놈쿱 이까오만카 딜삼샤쿱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샴띠와 파한디르난 파우지 우쿠르만 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이디썸잉 쿠 민시리 함샤오 딕리르 만샤민 우딕 만 키르 우삼다운 두두밀 새르만 딕디니 몸디 산만쿱 샤르쿱 이닥 샤오움 몸디를쿠 르만사키 우썸샤오 디와진 가 피난띠까 만 무르말 닥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샤이 둠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깡띠와 한난 파우지 썸샤오 디와진 가 오파르 만샤르띠까 만 뚜르샹그만사니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띠락 미차 샹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파닌다르 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샤이 둠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디몸 꼬우 우르딕씨뭉 띠락 미차 샹두지까 오멘 우난딕 라득시만 완씨에 다싼지 민까 우 산샤이 둠 시만 난썸 미차 드양신까리나 미파시두 우난닥 썸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썸난 만시 깡띠와 한난 파우지 완씨에 다싼지 민까 푸만 몸디샤미릭 암드리 올파삼만딕릭 밀카 드밀삼샤우니

16. 통역자

한국에도 낙타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원에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낙타가 한국에 사는 동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타와 같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만 적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낙타가 한국의 동물이나고 물으면 아무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인에게 낙타를 보호해야 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타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한국에만 적용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항상 모순은 존재하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한국도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점점 오만해 지는 자세를 갖는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전에는 전쟁으로 인해 최빈국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에 관광하러 오지 않았고 배우러 오지 않았고 돈을 벌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미국과 유럽에 많이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배워서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지낼 때 아마 저처럼 낙타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처음엔 말없이 그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좀 더 지나 언어가 통하고 그 사회의 구조를 익히고 나서는 아마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자 자신도 그 사회의 일부로서 선진시민의 모든 권리를 갖고자 했을 겁니다. 자신의 나라는 아직 가난해도 자신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혜택과 인권을 다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때 그 나라의 불평등한 대접에 대해 불평하고 잘 사는 나라의 편협한 차별에 분노했을 겁니다. 그 분노를 경우에 따라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나라를 저주하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정말 흐르는 강과 같아서 너무나도 자연스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면 불평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할 때의 모습과 미국인 관광객을 대할 때의 모습에서 저는 추한 느낌을 받습니다.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에는 우월함이 없다고 봅니다. 역사에도 우월함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역사, 이슬람의 역사, 유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국도 그러했고 저의 고국인 동티모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같습니다. 미국은 낙타를 싫어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17. 대담자

몸디 파쉬르씨의 말씀을 듣고 정리해볼 때 한국이 경제 부국으로써 약자에 대한 부당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릴 때 이러한 외로움은 사라진다는 말씀 같습니다.

17. 통역자

니디르 방제글 이질놈국 이까오만카 딕디니 몸디 산만콤 이디수잉 쿠 딜삼샤콤 피난띠까 만 이디수잉 우난닥 샴샤우 만시라득 뿌완 씨에 싨다질 미. 피릴 쉼난 만시 깡띠와

18. 초대자

반디니 후글리딕

18. 통역자

예, 그렇습니다.

대담자

몸디 파쉬르씨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전적을 공감합니다. 다소 추상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구체적 문제 제기와 해결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진술안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도 몸디

파쉬르씨와 저희간의 정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원활한 소통이 안 이루어 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